



‘전통 짚 공예품 만들기’

전남도 농업박람회 24일부터 3일간

전라남도 농업박람회(관장 강석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경문화체험관에서 ‘전통 짚 공예품 만들기 체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체험행사는 짚 공예인 2명을 초청, 새끼 꼬기를 비롯한 이엉 엮기, 지게 뿔뿔, 계란꾸러미, 짚신 만들기 및 가마니·뒹지리 짜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짚공예를 비롯해 대형 짚공 굴리기, 새끼 줄 낚기 등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100여 점에 이르는 각종 짚공 공예품과 옛 사진자료 전시회 등도 함께 열린다. /영남=김현남기자 hnkim@

순천 100석규모 콜센터 개소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순천에 콜센터가 문을 열었다. 엠보이스 텔레소프트 콜센터는 18일 순천시 저전동 동양생명 빌딩 6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엠보이스 콜센터는 지역 주민 50여명을 채용해 관공상재전화상담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 등의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8월 순천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엠보이스 콜센터는 주관사인 ‘엠보이스(콜센터 구축 및 운영전반)’와 ‘에스팩트(시스템)’, ‘데이콤(통신인프라)’ 등 3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00석 규모로 시작해 향후 200석으로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담양군 ‘11월11일은 竹竹데이’

담양군이 오는 11월 11일을 ‘竹竹 Dream Day’로 정하고 대입 합격과 취업,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수험생을 비롯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도 웰빙관광 1번지인 죽녹원의 ‘운수대통 길’에 대나무로 제작한 소망등을 달고 대학입학과 취업 등 소망을 기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담양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061)380-3150, 각 읍면사무소, 학교 등에 신청을 하면 되고 참가비는 5천원이다. /담양=차재희기자 jwha@

장흥·강진지역 개명신청 ‘붐물’

광주지법 장흥지원 을 123건... 128% 증가

여성수자 압도적 많아... 허가율도 94%

올들어 장흥·강진지역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개명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정준영)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개명신청건수는 지난해 54명보다 128%가 늘어난 123명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호칭하기 나쁜 이름을 바꿔달라’가 23%로 가장 많았고 ‘사주풀이 이상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겠다’가 19%를 차지했으며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 다른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18%, ‘출생신고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개명신청’ 12%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명허가자 116명 가운데 여성이 80명으로 전체 허가자의 70%를 차지했으며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여성수자가 남성수자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들의 개명신청이 늘어난

것은 호주제 폐지 등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사회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개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명허가를 또한 크게 높아져 장흥지원의 지난해 평균 허가율이 59%대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4%로 높아졌다. 법원도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의 개명허가 완화조치이후 개명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준영 장흥지원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수성향과 의식수준으로 볼때 아직도 개명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를 통해 개명민원신청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국화 향기에 취해볼까

화순군청앞 화단이 꽃수레, 꽃지개 등 다양한 모양의 국화꽃으로 단장돼 민원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화순=조영수기자 css@

기업 투자유치 활건은 고흥군

박군수, 휴대폰 업체 ‘피앤텔’ 등 향우기업 방문

박병중 고흥군수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기업인으로 성공한 고흥출신 향우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나섰다. 박군수는 국내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의 선두주자인 (주)피앤텔을 시작으로 콘크리트건설 업체인 남음건설 등 향우기업체를 차례로 방문, 고흥에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군수는 또 20일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향우의 밤 행사에 참석, 향우들을 격려하고 고흥사랑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향우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흥군

이 역직사업으로 추진중인 중형 조산소유차와 농수축산물 가공단지 조성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고흥사에서 열리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장을 찾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충남지역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A사와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투자상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한편 20여만 명의 고흥 재경향우회는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고흥순례를 하는 등 애郷심이 남다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한·일 청소년 축제 한마당

장성고-日 아오모리현 고교생 교류 만돌린·고전기타 연주 등 행사 다채



장성고등학교(교장 반옥진)와 일본 아오모리현 소후주쿠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장성고에서 제 9회 양교 교류연주회 및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사진) 교류연주회에서 소후주쿠 고등학교 30여명은 서양음악과 우리 음악을 만돌린으로 연주했으며 장성고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에 연마한 고전기타, 사물놀이, 합창, 대금연주, 강강술래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장성=고재민기자 jgko@

특히 50명의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시연한 후 행사에 참가한 양교 학생들이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를 펼쳐 보임으로써 양교의 우정을 확인했다. 소후주쿠고 2년 아마모도군은 “장성고가 거주는 물론 골프연습장, 검도장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놀랐다”며 “역동적인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서 배울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옥진 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교류연주회가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21세기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고가 실력 못지않게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gko@

‘땅끝마을 공부방’ 문닫을 위기

결손가정 아이들 30여명 방과후 학습 집주인 매각 방침에 당장 오갈데 없어



결손가정 아이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왔던 해남 땅끝마을 공부방이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 해남군 송지면 중리 ‘땅끝마을다운 교회’ 선교사인 배오섭(50)·김혜원(41)씨 부부가 ‘해남 땅끝 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부터. 배씨 부부는 2002년 미국인 김헬렌(70)선교사가 선교사업 목적으로 인근 아이들에게 영어와 공부를

지도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부터 땅끝 공부방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김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공부방 운영을 맡게 됐다. 배씨 부부는 20여 명의 비어있던 집을 빌려 30여명의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고 있으며 그중 10여명은 이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주인이 집을 제 3자에게 팔겠다고 밝히면서 공부방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씨는 “지급 없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천여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locations including Jeonju, Gwangju, and Jeonnam. Includes listings for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신도시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주)'. Each listing provides contact info, location, and property details.